

문 대통령 “위기극복 정부...시대적 소명”

국무회의 주제 “코로나 확산 걱정...완전 극복 최선” 디지털·그린 대전환 강력 추진·산업혁신 발판 주력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대전환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기극복 정부로서 임기마지

막까지 역할을 다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기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를 ‘위기극복 정부’로 규정,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 사태, 4차 산업혁명 가속화, 기후변화 등 위기 극복은 물론



선도국가도약을 위한 대전환의 발판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사태와 관련, “추석 연휴를 지내며 우려했던 코로나 확산으로 걱정이다. 거시경제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이

어가고 있지만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포용적 회복·재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잘 헤쳐왔다”며 방역·경제 위기의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용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취업자 수는 지난달에 코로나 이전 수준의 99.6%까지 회복됐고, 이 추세대로라면 고용도 올해 안에 코

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해 생업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위로를 건넨 데 이어 “정부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생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역·접종·민생·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상회복 단계로 하루속히 나아가는 것”이라며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도 느끼고 있다”며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량 집중을 약속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방역·접종 참여를 호소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강국 대한민국의 굳건한 위상은 대전환 시대, 선도국가도약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혁신을 무기로 디지털·그린 대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산업혁신에 가속도를 붙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천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천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최초 보도 기자 만난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대표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언론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최초 보도 기자와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2차 슈퍼위크’ 사활 건 이낙연...50만표 향배 주목

오늘부터 투표...“격차 좁혀 수도권서 결선행 싸기”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2차 선거인단 투표(2차 슈퍼위크)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과 일반당원이 참여하는 2차 선거인단 규모는 총 50만명으로, 이들 가운데 적어도 35만명(투표율 70% 가점)이 실제 투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누적 과반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득표차는 11만9,000표

다.
캠프는 개천절인 내달 3일 발표되는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승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 지사에 과반을 내줬던 1차 선거인단(64만명) 때보다 모집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자체 분석 때문이다.
2차 슈퍼위크 승리로, 격차를 한 자릿수로 좁히고 이어질 수도권 경선에서 진검승부를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28일 “2차 슈퍼위크에서는 최대한 격차를 좁히는 것이 목표”라며 “대장동 의혹이 여야 대결로 가면서 잠시 멎었던 중도층이 다시 움직인다면 해볼 만한 승부”라고 말했다.
캠프의 목표는 이 지사의 과반 저지에 있다. 결선에 가면 반이재명 지지층과 중도층이 결집하면서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다는 셈이다.
특히 이 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정국의 메가트렌드 이슈로 부상하면서 수도권 지지층의 예민한 ‘부동산 관심’

이 대개 이전 대표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캠프는 대장동 논란이 여야전면전으로 비화하자 대응 전략을 전면 수정하기도 했다. 이 지사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는 접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조로 선회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 지사의 이제까지의 설명을 믿는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서 정부의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재차 요구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독자행보 본격화

국민의당이 전국지역위원장을 모집하며 독자 조직 정비에 나섰다.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통한 야권 대통합은 한 발 더 멀어지는 것 아니

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국회의원 선거 단위인 전국 214개 지역구에서 지역위원장을 공모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28일 “대선을 앞둔 시점에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절차”라며 “공당으로서 기반을 다지고 후보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창당 이래 7개 시도당 위원장만 됐던 국민의당은 올해 5월 한 차례 공모를 통해 29명의 지역위원장을 임명할 바 있다.

당시 국민의당과 몰입 합당 논의가 이뤄지던 때여서 자분 요구를 위한 ‘일박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이번에는 1차 공모에서 미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일정에 따라 재공모를 하는 것이라는 게 국민의당 측 설명이다. /연합뉴스

김 총리 “2주 연속 연휴 모임 자제”

“방역수칙 준수 당부”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로 인해 2주 연속 연휴를 맞게 된 것과 관련해 “이동과 모임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중이 40%에 육박한 가운데 비수도권의 확산세까지 커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감염의 고리를 끊어낸다는 각오로 이번 주 방역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예정된 지역의 축제·행사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는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축제·행사는 재검토하고 불가피하게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방역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확진자의 16.2%가 국내 체류외국인이라고 소개하며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에 “외국인 밀집 거주지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더욱 확대하고, 신분이 불완전한 미등록 외국인도 검사·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한 김 총리는 이들의 방역 완화 요구에 대해 “단계적 일상회복”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높은 예방접종률로 감염위험이 크게 줄고 의료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확산세가 통제돼야만 일상회복의 여정이 순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Cubicle Innovation
We will create a futuristic toilet culture

화장실칸막이의 모든것 중원큐비클과 함께

화장실 칸막이 40년 노하우로 직접 생산 및 전문시공업체 다년간의 관공서, 기업체, 상가, 병원, 학교, 어린이집, 휴게소 등 시공 및 판매 경험으로 화장실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해 드립니다.

- 직접생산을 통한 저렴한 가격
-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제품 신뢰성
- 생산자 직접 시공을 통한 완벽한 시공

전국 어디든 불러만 주시면 바로 달려 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CUBICLE
[주]중원큐비클

T : (062)525-6993~4
F : (062)525-3832
(우)61900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502번길 20-8

M : 010-3647-3832
E : jwc3832@nate.com